

“在美 활약 5천여 韓國人 科學技術者들은

『현재 美(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5천여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은 그들이 애써 쌓아올린 고도의 과학기술을 언젠가는 母國(한국)을 위해 아낌없이 바칠 날이 오리라고 확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학기부터 모교인 延世大(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로 부임, 이제 3개월을 보낸 前在美(미국) 한국과학기술자협회 제9대 회장 禹廣芳(우광방) 박사(48)는 그 자신 23년만의 영구귀국소감이자 在美(미국) 한국인 과학자들의 보편적인 마음을 이렇게 털어 놓는다.

『23년만의 귀국입니다마는 사실은 10년전에 모 국가연구기관의 유치계획을 받아들여 귀국을 결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거의 결정이다 되었는데 몇가지 개인사정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科總(과학기술총연합회)이 주최한 國內外(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 등에 참석하라고 몇번 한국을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나는 나날이 발전하는 조국의 모습을 보며 언젠가는 나름대로의 계획에 맞춰 돌아와 기여해야겠다는 결심을 항상 다지곤 했지요.』

57年(1972년) 延世大(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나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년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60년에 美(미국) 오레곤주립대로 유학, 64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禹(우) 박사는 그후 워싱턴大學(워싱턴대학교), 미시건大學(미시건대학교), 美(미국) 국립보건원(NIH) 암연구소를 거쳐 79년 이후 존스홉킨스大學(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연구와 교육에 정진해온 이색 전기공학자이자 암치료관계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암의 치료는 이제 단순한 醫·藥學(의학·약학)의 차원만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수가 없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도 수년전부터 醫工學(의공학)의 도입 등 암의 발견과 진료에 새로운 시도가 가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현상입니다마는 아직도 미국등 선진국의 수준에 비하면 많은 노력과 투자가 요구된다고 생각되는군요.』

한마디로 박사는 자신의 전공인 전기공학과 醫·藥學(의학·약학)의 상호협력 내지 보완작업이 의공학의 커다란 일면이라고 설명하고, 醫工學(의공학)의 개념을 파악하고 여기에다 치료의 문제를 적용하는 경향이 크게 높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경향은 따라서 암의 치료에서 당연히 의학자나 약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전기공학자로서 자신의 전공을 암치료에 직접 활용, 기여할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祖國發展에
献身은
너무나 当然

이런것에 대해서도 박사는 무척 보람을 느낀다. 특히 이 분야에서 세계의 내노라 하는 과학자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연구하고 토론할수 있었던 시간을 흐뭇하게 여긴다.

그러나 아직은 성급한 평가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의 풍토나 제도, 조직같은 것에서 일에 대한 충분한 댓가보다는 비생산적인 면을 여전히

矜持를 갖고 新世界에 도전해가고 있다,,

중시하는 경향의 개선이 아쉬운듯 하다고 禹박사는 말한다. 또 귀국후 국내 수개 공사립대학의 시설을 둘러본 소감은 특히 사립대학의 이공계 교육시설 수준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며 외국처럼 국가와 산업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겠다고 강조한다.

『이제 귀국한지 3개월이 지나가는군요. 오랜 동안 외국에 나가있다 돌아온 만큼 나에게 쏘리

국내의 명문 대학부속병원인 연세의료원의 부속 암센터와 벌써 공동연구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禹박사의 새로운 공헌에 자못 기대를 걸어 본다.

제9대 在美科協회장 재직중에 「在美韓人 2세 과학도명단」을 발간하기도 했던 禹박사는 在美 2세 과학도들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다 귀국했으나 새로운 임원들에 의해 뜻있는 사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在美한인2세 과학도명단에 수록된 학생수는 모두 1천1백명이지만 누락자도 3~4천은 될것이어서 언젠가는 완벽하게 우리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파악하여 활용할 날이 올것이라고 내다본다.

도미한후 63년에 부인 李金永여사(44)와 결혼한 禹박사는 슬하에 대학2년생인 아들, 대학 1년생인 딸, 이렇게 1남1녀를 두고 있다. 부인 李여사는 延世大수학과를 나온 3년 후배지간이자 학문의 반려자로 와싱턴大学에서 응용수학 및 전산공학을 전공,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데 美海軍해상병기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禹박사와 같이 오지 못한것은 자녀 뒷바라지와 학업계속 때문으로 늦어도 금년 연말에는 귀국하여 가능한한 후배 지도에 나섰으면 한다고...

『재미동포들은 이곳에서 흔히 이야기 하듯이 2세교육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주체성을 상실한 듯한 사람도 있지만 역시 한국인으로서의 자기존재를 확인 하며 새로운 세계에 도전해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간 美国이니 만큼 갈 때의 명분이 소망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 습니다.』 <李健部長 記>



延大電氣工學科教授로
귀국한 禹 廣 芳 박사

는 관심과 기대가 학교와 관련 학문영역에서 적지 않다고 느낍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우리나라 과학계의 발전향상을 위해 노력할까 합니다.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모교강단에 서고 보니 우선 학생들의 진지함이랄까 향학열이 높음을 보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금새 이런점을 간파하게 되더군요....」